

호주 양육인으로 살아가는 법

- 한국인 최창열씨, 호주이민 후 사슴사육 시작 -

최 창 열/시드니사슴농장 대표



들어가는 말

농사나 축산 같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고, 빠르고, 자유롭고, 재미있는 시간보다는 언제나 긴장하고, 조심하여, 기다리고, 보살피는 시간 속에 자신도 한 덩어리로 뒤엉켜 자연과 하나됨을 감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일은 얼마나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지.

과학의 발달로 우리들의 음식문화에도 커다란 변화가 오고 있다. 유전자 조작으로 생겨나는 많은 고기와 채소들은 분명히 획기적인 식량증산으로 지구인들의 부족한 식량사정을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 하지만 지구 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절반이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다. 동물에게 주어지는 식량이 인간에게 돌아온다면 인류 최대의 기아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은 옥수수과 콩, 밀 등의 식량을 동물에게 먹이고 동물로부터 고급 단백질을 공급받는다. 정어리 같은 생선은 다른 어류의 먹이가 되고 인간은 그로부터 품질 좋은 바다 단백질을 얻는다.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끈질기다. 식량증산을 위한 품종개량은 물론, 과학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 식품들은 그 유해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식탁에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득보다 실이 많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하며 상술에 편승하여 지구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량증산과 품종개량은 중단되어야 한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농사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농작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땅을 갈아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주며 열심히 물을 주어야 하고 병충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0여년 전쯤 유기농업 교육이 있어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장소가 어딘지 강사가 누구였는지 기억에 없지만 그분이 갖고 있던 철학은 간단한 것이었다. 내 아이들 먹을 과

일과 채소, 고기가 된다면 농약과 비료에 의존한 농사를 짓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일제시대 이전까지는 비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일합방으로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쌀 맛에 반하여 비료를 들여와 쌀 증산을 획책했다고 한다. 많은 쌀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비료로 인한 토질의 산성화로 인한 각종 병충해는 인체에 유해한 농약으로 처리하였다. 비료가 들어간 땅에는 반드시 농약이 따라 들어가게 된다.

아이러니한 것은 비료와 농약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유기농업도 일본을 통해서 왔다는 것이다. 그분의 설명으로 서울대 유달영 박사께서 최초로 들여와 보급하였다고 한다. 요즘은 많은 유기농가들과 기업들이 좋은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유기농업의 유래와 고생한 분들의 수고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호주로의 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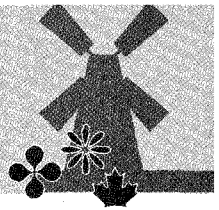
호주로의 이민도 쉽지 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 당시 복합영농의 기치를 걸고 많은 농어민 후계자를 양성하여 지원하였는데 타지에서 와 자리 잡은 나는 제외되었다. 무슨 일을 하여도 연고와 혈연, 학연이 줄이 되어 건실하게 농장을 키워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조그만 줄이라도 대어 친분을 활용해야 하고 추천서를 받으러 인사를 다녀야 하는 사회가 싫어졌다. 또한 1981년도에 새로운 꿈을 안고 개척을 시작한 강원도 문막의 농장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했다. 목장

을 그만두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었다. 호주로의 이민 결정 후 모든 일은 빠르게 진행됐다.

1988년 11월 시드니에 도착했다. 교회가 처음 온 이민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대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투자이민이라는 것은 기존 이민자에게는 이질감의 대상이었다. 아픔들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으면 스스로 더 힘이 들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2년을 보내며, 모든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열려가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과자공장, 청소, 타일러 등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며 그 이전에 한국에서 갖고 있던 이민의 환상들은 벌써 버린 상태였다. 본격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찾아보았으나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라며 공부한 동물 사육으로 다시금 뛰어 들고 있었다.

1993년 시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만평의 땅을 구입하고 사슴목장을 시작했다. 투자에 무리가 있었지만 집을 처분하고 용자를 얻어 1만평을 구입하고 사슴사육을 시작하였다. 시작 초기 재미는 있었다. 물론 아내는 농장의 목가적 분위기와 충분하고 일률적이지 않은 수입, 그리고 나와 같이 느끼는 영어에의 부담감으로 힘들어했다.

1994년 6개월된 레드디어 60두, 꽃사슴 40두 등 100마리를 입식시켰다. 1995년부터 녹혈을 채취하여 원하는 교민들에게 공급했으며, 한인으로서 처음 시작한 사슴농장이라 여행사에서 많은 여행객을 공급해 주었다. 여행객들의 녹혈시



식과 음식, 그리고 사슴중탕을 하여 1998년에는 용자금 중 원금 일부를 갚아 나갈 수 있었다. 그러던 중 한국의 IMF 때문에 여행객들이 줄어들자, 교민 시장에 더욱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사슴중탕을 교민 식품점에 고정적으로 납품했으며 중국 한약방에도 납품하여 여행객들만 바라보며 마음 졸였던 시간을 뒤로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갔다. 그러다보니 2000년이 되면서 관광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사업은 더욱 커나갈 수 있었다. 다시금 관광시장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논리를 잘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여행사 가이드들의 지나친 요구들을 수용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사슴농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100%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그 이윤을 자기들에게 주라는 것이다. 가이드의 생활과 여행사의 생리를 전혀 알지 못했던 나는 비로소 그들의 생리를 알게 되었다. 덤핑으로 여행객을 받고 쇼핑으로 그 손실을 만회하며, 팁으로 가이드들의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욕심을 접고 200여 마리가 넘어가던 사슴들도 30여 마리를 남기고 판매했다. 농장유지는 사슴중탕을 찾는 교민들과 한약방에만 납품했으며, 농장의 부속 건물들은 수련장을 찾는 한인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그때그때 임대하여 주고 있다.

이민 후 성공을 위하여 아내와 손발이 부르트도록 힘든 일도 해보고, 농장을 경영하며 적지 않은 금전적인 이익도 보았지만 더 큰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져야 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농장을 축소하니 성공한 사업가보다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사는 평범한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호주의 농업

호주는 2천만을 육박하는 인구에 7억6천8백만 헥타르의 방대한 국토를 가진 농업 대국이다. 농업인구는 4.8% 남짓 되고, 농업 취업자수는 4.8%에도 못 미친다. 농경지 면적은 4천9백만 헥타르, 초지면적은 무려 4억1천8백만 헥타르를 넘는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농가 호당 평균 농용지 면적은 2천8백 헥타르로 세계 제일이다. 남의 일손도 없이 이런 규모의 농경지를 경작하려면 토지 친화적인 초식 가축이나 곡물의 생산밖에는 마땅한 품목이 없다.

호주의 주요 농산물은 1991년 기준으로 밀 936만톤, 보리 403만톤, 귀리 162만톤, 수수 89만톤, 설탕 280만톤, 우유 658만톤, 치즈/버터 28만톤, 쇠고기 174만톤, 양고기 76만톤, 양모 17만톤 등이며, 이들이 주요 수출품목이기도 하다. 농산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품목의 해외 시장 확대 여부는 호주의 경제를 좌우하는 셈이다.

호주가 주로 수입하는 농산물은 담배, 채소, 과일, 커피, 코코아, 차, 포도주 및 맥주, 유채, 식물성 기름 등 고급품이다. 땅 중심의 농업국이 가져야 하는 숙명적인 수입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호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은 밀과 메슬린, 사탕수수당, 사료곡물, 맥주 맥, 면실류, 맥아, 원목, 쇠고기 등이고 호주로 수출한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은

조제갑각류, 잎담배, 라면, 당면, 조제어류 등이다.

호주 역시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저급 농산물인 곡물과 초식 가축을 주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반면에, 고급 농산물을 수입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향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호주 정부는 세계 농업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벌써 국내 시장의 가격지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자유시장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수출 지원금을 늘려서 해외 시장 개척에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호주 사슴사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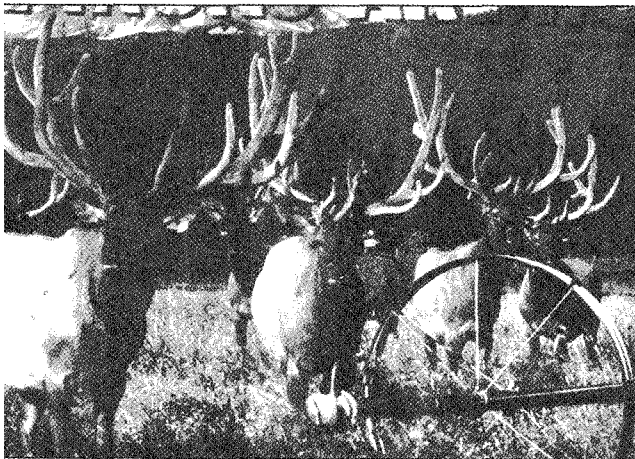
사슴농장이란 호주에게 아직 낯설다. 하지만, 1000년 전에 사슴사육을 시작한 중국이나 각종 보양재를 좋아하는 우리에게는 친숙하며 낯설지 않다. 1970년 뉴질랜드에서 사슴농장이 시작된 지 얼마 안돼서 호주에서도 사슴농장에 관심이 많이 쏟아졌고 지금도 그렇다. 뉴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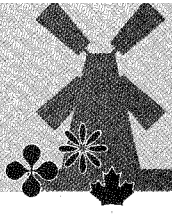
랜드에서 사슴사육 광고를 많이 냈고, 뉴질랜드 사슴농장주가 호주로의 이주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또한 70년도 말에서 80년도 초, 한국에서 건너간 사업가들에 의해 버려졌던 사슴뿔을 가공하여 수출의 길을 트자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녹용을 다시 보게 되었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사슴에 대하여는 고기밖에 몰랐던 호주인들이 지금은 사슴을 키우면 도움이 되는 많은 유익에 대하여 알고 있다. 사슴보약, 녹혈, 사슴고기, 사슴녹용과 사슴가죽, 그리고 사슴 자체의 수출 등. 특히, 사슴고기는 연하고 지방도 많이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어서 다른 고기들보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 아주 귀한 고기라고들 알고 있다. 녹용을 채취하는 호주방법은 뿔이 단단해지면 바로 잘라준다.

요즘 호주에서도 녹용을 많이 연구한다. 그 중 피터 고쉬(Peter Ghosh, Royal North Shore Hospital) 박사는 녹용에 대한 연구 검사 결과 녹용은 아주 훌륭한 약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호주사람들이 사슴을 사육하는 이유 중 재미있는 것은 수입도 중요하지만 사슴과 자연이 주는 너무 아름다운 조화 때문이라고 한다.

호주에서 생기는 녹용의 80%는 아시아로 수출되지만 고기는 대부분 독일로 수출된다. 물론 한국으로도 수출된다. 호주는 사슴사육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 무역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하





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호주와 경쟁을 같이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는 대략 1백2십만 사슴들을 갖고 있고 호주는 아직 그 1/5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슴고기는 15~24개월 되면 잡아 얼려서 판매상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아시아 손님들이 바로 사는 경우도 많다. 전통적으로 아주 좋은 사슴부위는 1kg당 120달러정도, 때로는 그 이상에서 판매된다. 하지만 호주는 1995년 30,000마리, 1996년 34,000마리 1997년에는 20,000마리를 도축했다. 충분한 시장형성과 번식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수만 마리를 도살하고도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호주는 지금까지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슴은 빨리 적응하고, 보통 양과 소를 키웠던 농장에서 많이 사육하고 있다. 사슴을 키우려면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휴식할 장소,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장소가 필요하다. 울타리는 대략 2m를 좁 넘어야 한다. 사슴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사슴이 도망을 안가게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디자인도 매우 중요하다. 보통 큰 통로로 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매우 좋다. 사슴은 같이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통로는 꽤 커야한다. 호주에서는 여섯 가지 종류의 사슴을 키우고 있지만 사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호주에서 사육하는 사슴은 약 50%가 꽃사슴이며, 40%가 레드디어, 그리고 다른 종들이 나머지 10%를 구성하고 있다.

사슴들은 아주 똑똑해서 사슴의 움직

임으로 그 다음 행동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자연과 친해서 그다지 세균과 질병이 없다. 보통 사람들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느낀다. 호주의 사슴들은 100% 방목으로 사육되며 7~9월 겨울철에는 마른풀과 통밀, 통보리, 혹은 다른 종류의 곡식으로 한국의 농후사료를 대체한다. 하지만 요즘은 모든 육식동물의 가격을 맛으로 평가하고 있어 점차 고급 고기일수록 풀보다는 농후사료로 대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외 농업경영교류 활성화방안

호주에서 10년 이상 농장을 하며 느낀 농축산 수출국으로의 호주는 한국을 황금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농민들은 농축산물의 자유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써 해외 동포들과 연계하여 농축산 기술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아울러 시장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선에 불과하고 매년 5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함께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민심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과수나 화훼, 채소 등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적인 마케팅을 통해 수입국 소비자들의 입맛이나 기호를 철저히 조사하여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실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배나 사과, 딸기나 수박 등 모든 것들이 당도와즙의 양, 크기 등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지만 호주의 과일들은 당도보다는 신선도를 더 중요시하며 한국인의 입맛과 호주인의 입맛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주가 한국을 황금시장으로 보는 것처럼 호주를 황금시장으로 보는 한국 농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는 한국의 농축산 기술이 선진시장의 기술들과 겨루어도 전혀 손색없을 정도로 발전하였다고 본다. 한국과 해외한인 농업인의 교류는 그런 선진 정보들을 교환하는 장을 만들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에 바라는 농산물수출전략

지금 수입자유화의 파고가 농촌을 강타하여 농민들의 영농의욕은 저하될 대로 저하되었다. 이때에 농산물 수출전략을 말하는 것보다는 먼저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에는 상호 연관성, 즉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업농 육성 등 현재의 농축산물 수입전면개방에 따른 저농산물 가격 정책 아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들을 세워 농민들을 더욱 위기로 몰고 있다. 외국 농산물 수입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와 전업농 육성은 상호 모순되는 정책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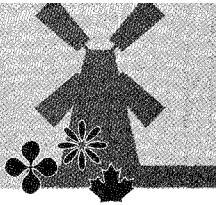
도시화에 따라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고 농업기계화가 진전됨에도 불구하고

농업구조는 여전히 영세하다. 또, 대농이나 기업농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외국 농축산물 도입과 그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폭락이나 농사가 수지 타산이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농업은 단순히 농산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이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삶과 일터와 환경, 그리고 문화와 민족의 생존, 나아가서 국가의 자주와 자존을 지키는 것이다.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농축산인들이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맺는 말

80년대 말 제주도에서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한참 많이 재배되던 시기에는 비닐하우스 면적이 700헥타르를 넘었다. 그런데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수입 개방으로 제주도 농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들 하우스 안으로 감귤과 금감, 포도, 꽃, 알로에 등이 들어가기 시작하여 고급 농산물의 생산붐이 일어나고 있다. 바나나 대신에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감귤이 노지 생산량의 2배를 쏟아내고 당도도 9.7도에서 13도로 향상되었다. 생산시기도 10월에서 5월로 앞당겨져 소득은 이전보다 6배나 올랐다. 이제는 포도, 복숭아, 체리, 대추, 배 등 대부분의 과일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채소는 벌써 오래전에 비닐하우스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과수원들이 기술농업의 발달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축분야에서도 축산공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맛이 뛰어나고 연한 쇠고기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비위생적이었던 돼지가 균이 없는 무균 돼지가 생산되며,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비타민을 높인 계란이 만들어진다.

모든 농축산분야에 과학이 접목되어 생산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다. 슈퍼한우가 나오고 뿌리에서는 감자가 줄기에서는 토마토가 열리는 식물 재배에 성공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 첨단 기술은 우리 농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기술농업이 확대되면 농업은 인위적인 생산 조절이 가능한 공장식 농업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다.

농업은 가공 산업과 연계되어 1.5차 산업으로 바뀌고, 관광농업을 통하여 3차 산업까지 곁들여지면서 복합 산업으로 변모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미래 농업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갖춰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진다. 벼를 포함한 곡물 농업은 현대식으로 정비된 생산 기반 위에서 기계에 의한 직파와 무인 헬리콥터를 이용한 비료와 농약의 공중살포, 콤바인에 의한 수확과 직수매 등 일련의 농작업 모두가 기계화된다. 원예와 축산 등 시설형 농업에서는 유리 온실과 철골 하우스에서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고급 농산물이 연중 생산될 것이다.

이처럼 농업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 사회와 첨단 기술 시대에 알맞은 형태로 적응하면서 발전되고 새로운 기계와 시설 장치, 컴퓨터에 의한 자

동 관리, 유전공학에 의한 품종 개량, 독성 없는 미생물 농약, 식품의 가공 및 처리 공정들을 통해 기술 농업 시대가 열리고 있다.

모든 농축업이 진일보한 과학기술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는 자연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지 않고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고, 자원의 재활용으로 화학 비료와 농약의 투입량을 줄이고, 지역자원과 환경을 보존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농업이 우리가 추구하는 기술농업, 관광농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완전한 무공해 농업은 아니더라도, 고도의 유기질 비료의 개발, 저독성 농약의 개발, 천적 등 생물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 등으로 토양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미생물을 이용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와 가장 근접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장래는 우수한 인재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때만 가능하다. 우수한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이런 인력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적극 적응할 수 있는 농업지도자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양록**